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

학업경 ①

선불교는 일상언어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 비논리의 논리이다. 중국의 한 선사는 노래했다. “회주(懷州)의 소가 벼를 먹었는데 익주(益州)의 말이 배부르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의 공간의 관념도, 자타의 관념도 모두 무너진다. 좀더 쉬운 말로 하면, “한 걸음에 여래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저 높은 부처님의 경지를, 감히 중생이 한 걸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한 걸음에 여래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말은 선불교의 기본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중생과 부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어떠한 간극도 무너뜨린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차원의 이해가 가능하다. 첫째는 논리적 차원이며, 둘째는 철학적 차원이다. 우선 논리적 차원을 살펴보자. 한 걸음에 곧바로 여래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중생이다. 따라서 이 인용구 속에는 여래와 중생의 존재가 같이 가정(假定)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양자는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는 선불교가 내세우는 것발이면서 동시에 화입이 내세운 것발이기도 하다. “중생이 곧 부처”라는 명제에서 중생을 하나(一)로 본다면 부처는 무량(無量)이라

글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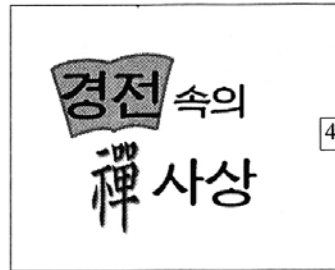
김호성 (동국대 교수)

해야 할 것이다. 중생이 부처라는 것은 곧 하나가 무량이라는 말이다. 이같은 논리를 <화엄경>에서는 “하나 가운데 무량을 알고 무량 가운데 하나를 안다”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 는 능히 무량이 되고 무량은 능히 하나가 된다”고도 말한다.

“한걸음에 여래의 지위 들어간다” ‘상즉논리’로 돈오 체계있게 설명

전자는 포함관계이고, 후자는 동치(同値) 관계이다. A와 B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相入)는 것은 A와 B가 같다(相即)는 말이다. 이러한 논리를 ‘상즉의 논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만 말하는 까닭은 상즉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상입의 뜻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말은 상즉의 논리를 총론적으로 말한 것인데, 이러한 논리는 다시 공간·시간·상불



과 관련하여 각론적으로 전개된다. 공간적으로는 하나의 티끌이 사방세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티끌 속에 사방세계가 다 포함된다”고 말하며, 시간적으로는 “일념이 무량겁이며 무량겁이 곧 일념이다”고 말한다. 그런데, 공간론이나 시간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불론이다. 공간론과 시간론 역시 “초발심이 곧 깨달음”이라 말하는 상불론(成佛論)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청되기 때문이다.

중생이 한 걸음에 여래의 지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선불교는 예시당초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돈오(頓悟)는 선불교의 생명이다. 그것은 돈오를 가능케 하는 논리적 근거가 바로 <화엄경>의 ‘상즉의 논리’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선불교의 돈오는 상즉의 논리 위에서 건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와 무량의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 부처와 중생이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부처도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중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며,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는 것은 자기동체성의 부정, 자기동일성의 부정에 다름 아니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는 것은 부처가 공이라는 말이며,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중생이 공이라는 메시지이다. 따라서 중생이 부처라는 것은 공과 공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공은 공이다(0=0). 이러한 동어반복은 당연히 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공의 논리는 선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친 <금강경>과 같은 반야부 경전에서 널리 설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논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선불교의 돈오는 가까이 <화엄경>의 상즉의 논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다시 상즉의 논리는 반야부 경전에서 설해지는 공의 논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야 → 화입 → 선불교”로 이어지는 사상사의 계보를 그릴 수 있게 된다.

태국 내니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부처님의 자유 ③

탐

욕의 지배를 받게되면 우리는 즐거움에 끌려다니고, 중오의 지배하에서는 고통스러운 느낌에 내몰리며, 미망의 지배하에서는 애매 모호한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행복해지면 신이 나고 슬픔을 당하면 기가 죽는다. 이득과 명예와 칭찬이 올 때는 의기양양하다가 손실이나 불명예, 비난이 닥치면 낙심 천만이다. 그 방향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해 나갈 힘이 없다. 그 길이 아닌 이 길이 이로운 길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길을 추구하지 못한다. 내버리지 못한 번뇌의 물살에 휩쓸려 삶과 죽음의 파도를 타고 비참과 절망의 소용돌이인 윤회의 바닷속을 이생자생 끌려다니다. 겉보기엔 지상의 통치자일지 몰라도 의식의 안마당에선 아직도 죽은 자일 뿐이다.

이와 같은 노예적 상황과 반대되는 것이 정신적 자유라 한다면 그것은 탐·진·치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탐·진·치를 버려, 그것들이 잠재된 형태로 남아날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쫓겨나지 않을 자유의 왕좌를, 확고 부동한 주인의 자리를,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앉게 된다. 설혹 그가 집집을 다니며 탁발하는 두타 행자라 하더라도 그는 역시 왕위에 틀림없다. 심지어 쇠창살 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자유롭다. 이제 우리는 자기 마음의 통치자

자유로 가는길 ‘팔정도’

탐진치 벗어날때 마음의 해탈 얻어

이때, 때문에 전 우주의 통치자이다. 왜냐하면 온 우주 안에 그 무엇도 우리의 재산인 마음의 해탈을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과 어울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세속의 영고 성취를 떠나 완전한 평정을 취하고 있다. 실속 유쾌한 대상이 인식 범위 내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들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며 고통스런 대상이 들어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양쪽을 모두 우리는 평온리에 관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주시한다. 서로 번갈아가며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상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끌리고 배척하는 사뭇 감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에는 금 한덩어리나 흙 한덩어리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칭찬과 멸시의 말이 우리의 귀에는 다 빈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오랜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 낸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 번뇌가 근절되면서 어떤 슬픔도 비애도 그의 마음에 범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탐욕이론 흔적도 없는 순전한 법연만이 거기에 남아 있다. 우리는 공에서 한 번 벗어나, 구경 공경 속에서 안락으로 호위를 받는 제왕들도 면치 못하는 그 으스스한 불안이 그에게는 없다.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났으며, 마음을 얻어 묶는 저 열정이라는 발명성의 성가신 병에서도 벗어나고, 윤회의 병에서도 벗어나 번뇌, 업지움, 과보받을의 악순환도 벗어났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가르침의 목표라고 지적하셨던 자유는 그 목표를 생생한 경험으로 실현해 낸 사람들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소금으로 간을 치면 어떤 음식이든 짠 맛을 내듯, 자유의 맛도 부처님께서 퍼신 법과 율의 처음 중간 마지막을 가릴 것 없이 전 범위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법을 닦든 간에 그 정도만큼은 자유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점은 진정한 자유 곧 마음의 내면적 자유는 은총으로 내려지는 하사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직 자유로 나아가는 길,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과학산책

하드론

지

금쪽 여러분들은 다소 생소한 단어들로 이상과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왼쪽 뇌가 약간 아플지도 모르겠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입자는 스핀수에 따라 보손(boson)과 페르미 입자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으로 보손(boson)은 힘의 역할을 한다. 양자장(場)의 이론에 의하면 보손으로 표현되는 힘, 장이 이산적인 에너지를 가진 상태인 입자, 진공은 모두 같은 장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입자, 진공, 힘이라는 전통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보다 더 근본적인 장(場)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된다.

물질의 근본을 탐구하는 소립자 물리학의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표준모델에서는 단지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경입자)으로 수많은 소립자들을 잘 정돈된 규칙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규칙성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수많은 소립자들을 몇 개의 더욱 근본적인 입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적

인 복잡함을 초월하여 더 깊고, 더 단순하고, 더 통합적인 자연법칙의 성격을 드러내 주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중성자와 양성자들에겐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수백개의 친척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페르미 입자이거나 보손들이었다. 이를 하드론이라고 부른다.

그 당시 물리학자들에게는 수 없이 발견되는 하드론이 골치덩어리였다. 1961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메리이 겔만(Murray Gell-Mann)과 그와 독립적으로 연구한 이스라엘 정보 장교 출신의 물리학자인 유발 니만(Yuval Neeman)은 수많은 하드론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들의 이론은 수학적 대칭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이 이론을 불교의 수행 지침 팔정도라고 불렀다. 팔정도에 의하면 모든 하드론들은 큰 무리(가족, family)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각 무리들은 일정한 숫자의 하드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 8,

10, 27개의 하드론 입자를 가진다. 하나의 입자만을 가진 무리를 단일항(singlets)라고 부르고 8개 입자를 가진 무리는 팔중항(octets) 등으로 부른다.

그 당시 물리학자들은 팔정도가 왜 그렇게도 잘 맞는지에 의아해 했다. 하드론들을 증류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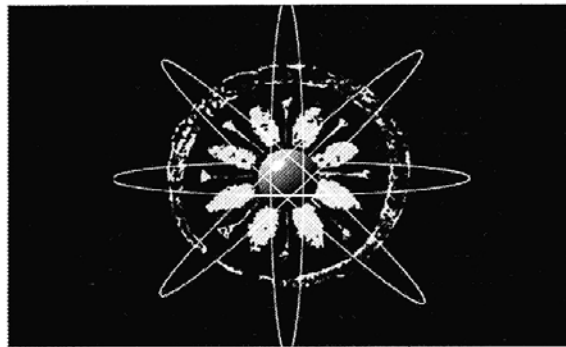
수학적 대칭성 바탕으로

수많은 하드론 규칙적 배열

대칭성의 비밀은 ‘팔정도’

조각을 내보려 했으나 생겨나는 것은 더욱 근본적인 입자가 아니고 증류에 의해 공급된 에너지로부터 더 많은 새로운 하드론이었는데 그러므로 하드론들은 더 조밀 수 있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근본 입자로 여겨졌는데 내부구조가 없으면서도 너무나도 규칙적인 팔정도를 따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것이다.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구두끈 가설(bootstrap hypothesis)



알려졌다. 이 대칭은 쿼크라고 불리우는 3가지 기본 입자로 그 당시까지 알려진 수백개의 하드론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물리학의 진전은 역사적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수학적 확증으로 기본 구성요소의 수가 확장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구성체들 중 존재하는 일련의 대칭관계, 예를 들면 쿼크 같은, 아(亞)구상체의 기본적 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통합의 방향이다. 이 표현적 복잡함을 초월하는 과정은 자연법칙을 이해하는데 더 깊고, 더 단순하고, 더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교육과정 안내

자비심행회와 교사불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기 호스피스 교육이 교수진들의 열정과 교육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회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교육을 통한 불교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자 제2기 호스피스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배우는 이교육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999.11.15

자비심행회·광주 전남 교사 불자회

교육이념

임종교육을 통해 희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방법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법 전체에 조용한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교육목표

- ① 치료 불가능한 환자와 임종을 앞둔 노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
- ② 사람들의 생·노·병·사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배우고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한다.
- ③ 사람들의 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세와 성불을 준비하는 기회와 발원의 시간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 ▶ 입 시 : 매주 2회(목·금) 오후 2시 ~ 4시
- ▶ 교육기간 : 1999. 12. 7. ~ 2000. 2. 29. (3개월)
- ▶ 교육비 : 3개월 10만원
- ▶ 접수처 : 자비심행회 사무실 ☎(062)222-1165
광주시 망동 55-1

제2기 임종간호 교육(호스피스) 강의 내용 및 강사

제 1주	죽음을 이해합니다	현장스님	대원사
제 2주	호스피스의 역사와 의미	능행스님	아미타호스피스
제 3주	임종환자와 호스피스의 역할	능행스님	아미타호스피스
제 4주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규칙	능행스님	아미타호스피스
제 5주	죽음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1)	이종표	전남대학교
제 6주	죽음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2)	이종표	전남대학교
제 7주	호스피스와 대체의학(1)	전홍준	의학박사
제 8주	호스피스와 대체의학(2)	전홍준	의학박사
제 9주	입과 윤회의 법칙	한탐스님	정토사
제 10주	임종 열병법	현장스님	대원사
제 11주	환자가족의 마음관리	김수진	간호간과
제 12주	환자와의 의사소통방법	김수진	간호간과
제 13주	영하는 일을 통해서 본 죽음의 모습들	문형원	능인회
제 14주	영상으로 보는 디벳 사자의 서	(N·H·K 제작)	현정스님해설
제 15주	바르도의 세계(1)	초펠스님	티벳스님
제 16주	바르도의 세계(2)	초펠스님	티벳스님
제 17주	디벳사람들의 죽음관	초펠스님	티벳스님
제 18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준비(1)	진옥스님	석천사
제 19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준비(2)	진옥스님	석천사
제 20주	호스피스 자원봉사 체험담	박인순	자원봉사자
제 21주	호스피스 대상자의 신체간호	박인순	한마음 호스피스
제 22주	호스피스 순방 및 사례보고	박인순	한마음 호스피스
제 23주	사별가족의 보살핌	혜도스님	승가대 교수
제 24주	디과 및 평가회	교수·학생 함께	

- 1박 2일 대원사 수련회(수련주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 일정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